안전은 권리입니다

락스 무심코 사용했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!

*락스

'락스'는 산화력이 강하고 저렴하여 **가정·사업장에서 살균 소독, 표백용으로 널리 사용**되는 화학제품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*락스 사고사례

락스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호흡기를 자극하고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해진 방법이나 적절하게 희석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

- 사례 1 '20.07. 락스 희석액을 분무기로 소독한 근로자에게 **기도손상** 발생
- 사례 2 '19.08. 지하 곰팡이 제거를 위해 락스 사용 중 **어지러움**과 **구토**증세 발생
- 사례 3 '18.06. 락스물에 걸레를 빨던 중 눈(안구)에 튀어 **화상** 발생

*안전한 락스 사용을 위한 5가지 약속

1 **희석배율 준수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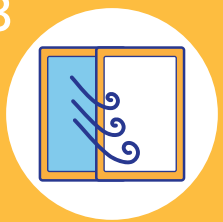
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희석 배율을 지키세요

2 **혼합 사용 금지**



다른 가정용 세제와 섞어 쓰지 마세요 (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)

3 **작업시 환기**



창문이나 출입구를 열고 작업하세요 (필요시 환기팬을 활용하세요)

4 **보호구 착용**



개인보호구(마스크, 장갑, 보안경)를 꼭 착용하세요

5 **분무 사용 금지**



절대 분무기에 넣고 사용하지 마세요

*응급조치 요령

사고발생 시 아래 요령에 따라 응급조치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**눈에 들어 갔을 때** 물로 조심해서 씻고 콘택트렌즈 착용 시 제거
- **피부에 접촉했을 때**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피부를 물로 씻어 낼 것
- **흡입했을 때**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할 것
- **먹었을 때** 입안을 씻어 내고 토하게 하지 말 것

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